

다 함께

나고야시종합계획2023 가이드북

NAGOYA

를 만들자!



하야시 오사무 씨 권두 인터뷰

세계에서 으뜸가는 ‘NAGOYA’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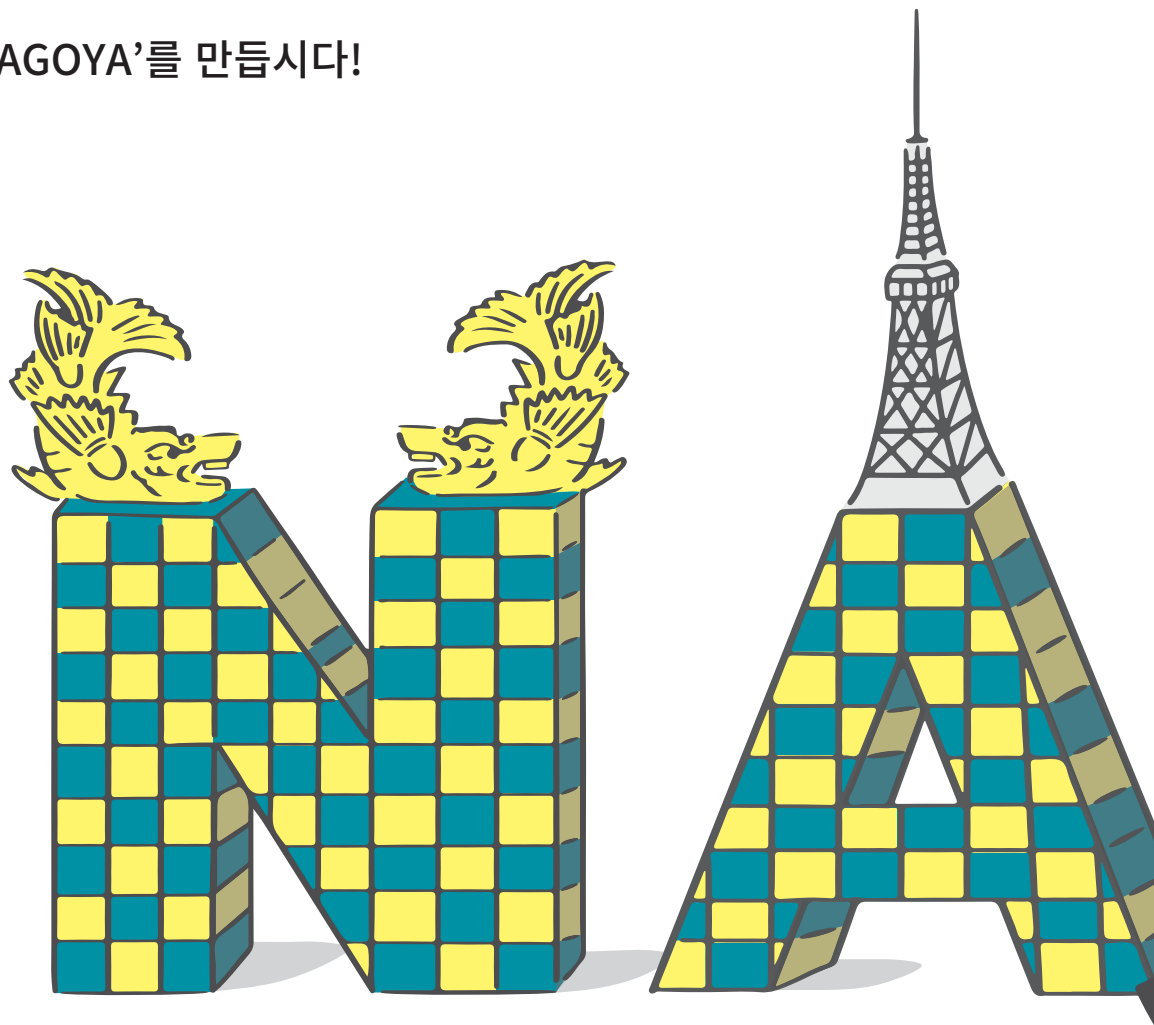


새로운 시대의 나고야시종합계획2023

레이와라는 새로운 시대를 나고야시는 어떻게 나아가며
어떠한 도시가 되어 갈 것인가.

이 가이드북은
나고야시종합계획2023을 모든 사람과 공유하여,
함께 나고야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다 함께 'NAGOYA'를 만듭시다!



콘텐츠

권두 인터뷰[하야시 오사무]	3
종합계획이란	5
1 나고야의 현재, 그리고 미래	6
나고야의 강점	7
나고야를 둘러싼 사회동태	8
도시조성방침	9
지향하는 도시모습 - 5개의 도시상	11
종합계획이 수립되기까지	13
2 도시상의 실현을 위하여	14
도시상 1	15
도시상 2	17
도시상 3	19
도시상 4	21
도시상 5	23
시민 서비스의 추진	25
나고야 도시가 비약할 기회!!	27
SDGs(에스디지즈)	29
3 중점전략	30
전략 1	31
전략 2	33
전략 3	35
전략 4	37
내가 좋아하는 나고야	39



많은 책에 둘러싸여 지낸 소년시절

- 나고야에서의
추억을 알려주세요.



대학진학으로
도쿄에 간 뒤, 30대
때 나고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는 나고야와
도쿄를 왕복하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라고 하면 도서관에 줄곧
다녔던 것입니다.
히가시도서관과 메이토도서관을 옮겨가며,
역사관계나 문학 등 상당한 양의 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같은 책을 빌리고는 반납하고 또
빌리고(웃음). 그리고 달리기를 좋아해서
미즈호공원과 후키아게공원, 쓰루마이공원 등을
하루 10~15 km쯤 달렸습니다. 얼마 전 오랜만에
메이조공원을 뛰었는데, 정말 좋은 코스이고,
달리는 시민 주자의 수준도 높아요! 점점
뒤쳐져서 아쉬웠습니다(웃음). 그리고 다녔던
토카이고등학교 주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듯 한 옛 상점가가 있어서요.
나고야의 거리는 옛 것과 새로운 것이 융합되어
있어, 편안함을 느낍니다.

Interview/Osamu Hayashi

제품에서 경험으로 그리고 세계로

- 앞으로 나고야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고야는 자동차산업을 비롯해 섬유, 도자기,
항공기 등, 많은 산업이 집적한 일본 제조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나고야의
강점이지요. 그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나고야항이 아닐까요. 화물량과 출하액, 자동차의
수출대수가 모두 일본 제일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더욱더 자랑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또한, 나고야항에만 머무르지 않고, 센트레아(추부
국제공항)로의 접근성이 전국적으로 보아도 좋는데
그다지 인식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둘 다
물류기반에 있어서 중요하고, 나고야의 높은
생산성과 편리성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나고야 사람들이 나고야의 좋은 점을 좀 더 알아
주었으면 합니다.

지혜를 살려서 세계와 직접 연결되는 나고야로

또한 나고야와 그 주변에는 많은 대학이 있고
노벨상 수상자도 다수 배출하는 등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내외로부터 우수한 학생을 불러 들여, 이 지역의
제조 산업과 연결할 수 있다면, 장래에 큰 강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큰 포인트가 될 것이, 역시 '리니어 중앙
신칸센'의 개통일 것입니다. 나고야에서 도쿄까지
40분이라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사카까지
연결되면, 도쿄·나고야·오사카의 3대 도시권에서,
관광과 산업, 지역간의 제휴 등, 폭넓은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가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의해야만 할 것이 도쿄·오사카 간의 이동 시간의
단축으로 각 지역의 인구와 경제활동이 흡수되는,

林

이른바 ‘빨대현상’이죠. ‘나고야에 갈 거라면 도쿄로 갈까, 오사카로 갈까’ 하고 편리해진 탓에 나고야를 지나쳐 버리고 맙니다. 리니어가 ‘양날의 칼’이 되어 버리지 않도록, 위기감을 가지고, 플러스면과 마이너스면을 제대로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점이 크면 클수록 들뜨지 않고 그 이면의 단점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엄격한 자세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제품의 소비’보다 ‘체험의 소비’시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이나 대도시로서의 우위성을 구축해 온 지혜를 살려 많은 매력적인 것을 세계로 펼쳐 가며, 나고야가 아니면 체험,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좀 더 충실하게 만들어서 세계와 직접 연결시켜 나아가는 그런 나고야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야시 오사무

修

Profile

나고야시 출신, 거주. 도쿄대학 법학부 졸업. 토신하이스쿨 토신위성예비학교 현대문학 강사. 토신하이스쿨광고에서 방송된 대사 “언제 할까? 지금이지!”가 크게 유행하며 “지금이지!”가 2013유캔신어·유행어연간대상을 수상. 추쿄TV 디지털 4 나고야시 정보프로그램 “나고야쥬!”에 출연중.

?



종합계획이란

시정운영에 대한 최상위계획입니다.

나고야시 기본구상

시정운영의 지도이념

종합계획은 시정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고야시가 목표로 하는 도시상을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종합한 것입니다.

나고야시종합계획2023에서는 제20회 아시아 경기대회의 개최, 리니어 중앙신칸센(시나가와-나고야간)의 개통 후가 되는 레이와 12(2030)년경을 내다본 미래의 도시모습을 그리며, 레이와 원년(2019)도부터 레이와5(2023)년도까지 5년간 실시하는 정책과 사업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나고야시 종합계획2023

도시조성방침

지향하는 도시상

미래의 도시구조

중점전략

시정운영의 체계

45개 시책 530개 사업

장기적 전망에 선 도시조성

레이와12(2030)년경을 내다본 ‘도시조성방침’과 5개의 ‘지향하는 도시상’, ‘미래의 도시구조’, 4개의 ‘중점전략’, ‘시정운영의 체계’를 종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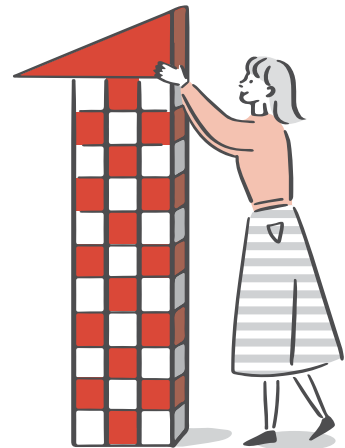
지향하는 도시상 실현을 위한 시책·사업

‘장기적 전망에 선 도시조성’에 나타낸 5개의 도시상을 실현하기 위해 **45개의 시책**과 그 **시책에 따른 530개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나고야가 현재 처한 상황을 정리하고,
미래를 향한 도시조성의 방향성과
지향하는 미래의 도시모습을
종합했습니다.

나고야의 현재, 그리고 미래





나고야의 강점

편리하고 쾌적하며 살기 좋다

대도시로서 고도의 도시기반과 기능을 지닌 동시에 넓은 도로와 공원이 확보되어 여유로운 생활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충실한 의료서비스와 대중교통 등, 생활의 편리함과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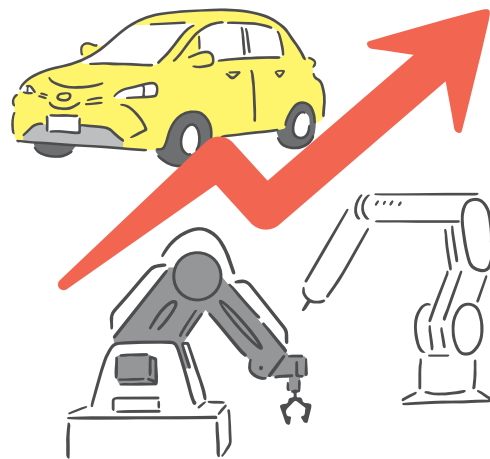


일본 정중앙, 교류의 중심

일본의 정중앙에 위치해, 신칸센을 비롯한 철도와 고속도로, 공항, 항구 등을 안고 있어 광역적인 교통·유통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리니어 중앙 신칸센의 개통으로 나고야시의 거점성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한 경제력

이 지역은 자동차와 항공기를 비롯한 로봇, 공작기계 등의 분야에 있어 세계 레벨의 산업기술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만이 가능한 상업·서비스업의 두터운 집적이 있어, 강한 경제력에 뒷받침된 안정적인 고용이 이루어집니다.





나고야를 둘러싼 사회동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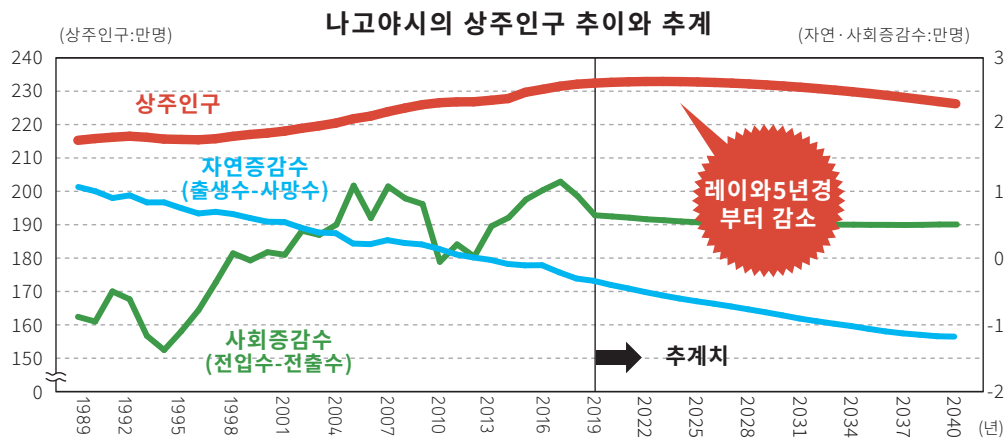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사망수의 증가와 출생수의 감소로 레이와5(2023)년경부터 인구감소로 돌아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향후는 사회의 지지대인 노동력세대가 감소하고 고령자의 증가가 전망됩니다.



가치관·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화되어, 단신세대의 증가 등, 가족이나 세대의 형태,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외국인주민이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우려

난카이 트로프 거대지진 발생확률이 향후 30년간 70~80%로 긴박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호우발생횟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류인구의 증가

국내외에서 나고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수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외국인 숙박객수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

IoT, AI, 로봇, 자율주행 등의 기술혁신의 진보로,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의 진행으로 인력부족이 우려됩니다.

도시조성방침

레이와12(2030)년경을 내다보며 어떻게 도시조성을 추진할 것인가.

그 큰 방향성을 ‘도시조성방침’으로 종합했습니다.



매력과
향토애가 넘치는
세계의 목적지로

리니어시대의
선두도시로



나고야성 천수각의
목조복원을 통해
특별사적 나고야성터를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일본 제일의 근세 성곽으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세계에서 으뜸가는

SDGs 미래도시로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개척한다

대규모 재해로부터
생명·산업을 지키고,
일상생활의
안심·안전을 확보한다

아시아 각국과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
아시아·세계의
교류거점도시로

사람·물건·돈·정보를 불러들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다

나고야 대도시권의
허브기능을 담당하며,
성장을 견인한다

풍요로운 미래를 만든다!

‘NAGOYA’로

나고야의 강점을
최대han으로 끌어낸다

일본에서 가장 아이를 응원!
고령자도 안심할 수 있고
모두에게 친절한
복지실현



지향하는 도시모습

- 5개의 도시상 -

‘도시조성방침’에 의거해
나고야시가 지향하는 미래의 도시모습을
5개의 도시상으로 종합했습니다.



도시상

1

인권이 존중되고,
누구나 활기차게 살아가며,
활약할 수 있는 도시

- 인권이 존중되고 누구나 보람찬 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시
- 고령자와 장애인을 비롯한 누구나가 불안함없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도시
-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답게 활약할 수 있는 도시

도시상

2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고,
아이와 젊은이가
풍요롭게 자라는 도시

-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도시
-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웃음 가득한 도시
- 젊은이가 밝은 미래를 개척하고 활기차게 활약할 수 있는 도시

도시상

3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재해에 강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 지진이나 호우 등 재해에 강한 도시
- 화재나 범죄, 교통사고가 나기 어려운 도시
- 안심, 안전한 시민생활이 보장되는 도시



도시상

4

쾌적한 도시환경과
자연이
어우러진 도시

-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도시
- 자연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정감있는 도시
- 친환경 저탄소의 순환형도시

도시상

5

매력과 활력이 넘치고
전세계에서 사람과 기업을
끌어들이는 열린 도시

- 높은 브랜드력을 지녀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도시
- 전 세계에서 사람과 기업을 끌어들이는 열린 도시
- 지역 산업이 활성화 되고 높은 산업경쟁력을 가진 도시

종합계획이 수립되기까지

나고야시종합계획2023은 시민 여러분과의 협동에 의해 책정되었습니다.

2017년도

7~8월 ▶ 시민 2만명 설문조사

11월 ▶ 통근·통학자 설문조사

1월 ▶ 외국인시민의 의견청취

2월 ▶ 아이들의 의견청취 1

2월 ▶ 여성 활약추진기업사원의 의견청취

3월 ▶ 청년들(학생)의 의견청취

3월 ▶ 정령지정도시 등 거주자 설문조사



1



2

2018년도

8월 ▶ 중간안 공표

8~12월 ▶ 중간안에 대한 시민의견 모집

9~10월 ▶ 육아세대의 의견청취 2

10~11월 ▶ 청년들의 의견청취
'U39퓨처세션@758' 3

10~12월 ▶ 타운 미팅 4

11~12월 ▶ 대규모의견집약시스템
'HAMAgree(해머그리)'에 의한
인터넷 대토론회
(나고야공업대학과의 연계에 의한 사회실험)

12월 ▶ 외국인시민의 의견청취

1월 ▶ 나고야시 차기종합계획조성
시민 워크숍 5



3



4



5

2019년도

7월 ▶ 나고야시종합계획2023(안)의 공표

7월 ▶ 퍼블릭 코멘트(의견수렴절차)

9월 ▶ 나고야시회 9월정례회에서
'나고야시종합계획2023의 책정에 대해서'를 의결(수정 가결)

10월 ▶ 나고야시종합계획2023의 공표



시민 서비스의 추진을 위하여
45개의 시책을 추진합니다.

시민과 행정의 협동을 원동력으로
함께 미래로

각 도시상 등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도시의 여러분들의 대응을 소개합니다.

종합 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소속, 직책 등은 인터뷰 당시의 것입니다.

인권이 존중되고, 누구나 활기차게 살아가며, 활약할 수 있는 도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람

- 나고야시 시니어클럽연합회에 대해 알려주세요

인생100세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을지, 오래 살았다고 해도, 머지않아 몸져 눕거나 치매에 걸리거나 하는, 그러한 불안은 항상 뒤따릅니다. 그런 상황을 상상하는 것은 매우 괴롭기에, 고령자에게 역시 건강은

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시니어클럽의 활동이야말로 건강장수의 비결

공익사단법인
나고야시
시니어클럽연합회
회장

사미조 요시타카 씨

절실한 바램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보람된 삶을 사는 것. 그러한 사회 실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시니어클럽연합회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고령자조직입니다.

나고야시시니어클럽연합회는 1281개클럽, 회원수는 5만 6천명이 넘습니다(레이와2(2020)년 1월 시점). ‘놀리자! 건강수명, 이끌자! 지역만들기’를 테마로 내걸고 건강만들기, 삶의 보람만들기, 지역만들기를 활동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은 걸어서 갈 수 있고, 무리없이 자주 활동할 수 있는 점을 중요시하며, 낮익은 이웃들이 모여 있습니다. 많은 동료와 함께 걷기와 체조, 그라운드 골프를 하거나 공원의 미화 활동 등을 하는 것이 즐거우며, 가끔 여행도 갑니다. 또,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에도 정통한 고령자는 지역 활동에 공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령자에게도 매우 소중한 삶의 보람이 됩니다. 고령자들이 생기넘치는 도시는 활기가 있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시니어클럽의 역할

- 향후, 주력해 나가고 싶은 것이나 목표는?

고령이 되면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야말로 저희가 나설 차례입니다. 지역 실정이나 같은 세대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요. ‘모두가 즐겁게 하자’라는 말이나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시니어클럽의 이점은 삶에 익숙한 지역에 기반해서 이웃만들기로 단결하여, 지역의 여러 어려운 일도 해결해 가는 것. 점이 아니라 선으로 연결되어 갈 수 있는 것이 시니어클럽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앞으로도 홍보해 나갈 생각입니다. 나고야시 시니어클럽연합회는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서 저희의 활동과 매력을 알리기 위해 ‘나고야카클럽 나고야’라는 애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물론, 회원이 아닌 분들의 의견도 경청하면서, ‘나고야의 시니어클럽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되는, 전국에서도 주목받는 시니어클럽이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갈 것입니다.



기타평생학습센터 체육관에서의 체력측정

클럽

다 함께 보치아!

보치아는 잭볼(표적구)로 불리는 백색공에 적색과 청색 각각 6개의 공을 던지거나 굴려 다른 공에 맞혀서 표적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시키는 것을 겨루는 스포츠로, 패럴림픽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어린 아이부터 고령자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보치아입니다만, 최고의 선수가 되면 치밀한 전략과 마치 바늘구멍을 통과시키는 듯한 투구로 보는 사람을 매료시킵니다.



사진제공: 일반사단법인 일본보치아협회

지향하는 도시상 실현을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

1. 인권이 존중되고 차별과 편견이 없는 사회를 만듭니다
2. 남녀평등참여를 종합적으로 추진합니다
3. 생애에 걸친 심신 양면의 건강만들기를 지원합니다
4. 적절한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합니다
5. 고령자가 삶의 보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6. 고령자가 지역에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7. 안심하고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8. 장애인이 자립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9. 누구나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을 추진합니다
10. 평생학습과 스포츠를 통한 보람만들기를 지원합니다



주요성과지표	최근의 현상치	목표치 2023년도	목표치 2030년도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라고 생각하는 시민의 비율	69.5% (2018년도)	72%	75%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이나 지역에 있는 고령자의 비율	63.7% (2018년도)	70%	75%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고, 아이와 젊은이가 풍요롭게 자라는 도시

아이와 어른은 파트너
현재와 미래를 함께 동행하는
관계형성에 다가선다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아동NPO이사

오노 토모코 씨

아동 한 명 한 명이 권리의 주체

- 아동NPO에 대해 알려주세요.

아동NPO는 ‘아동권리조약(해세이원년(1989) 11월 유엔총회에서 채택)’에 규정된 아동의 살 권리, 성장할 권리, 보호될 권리, 참여할 권리를 기반으로, 아동이 사회에 참여하는 장과 기회를 만들어 아이와 어른이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유아기부터 청년기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놀고, 배우고, 먹고, 그리고 거처하는 곳 각각에서 아이들 스스로가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 빈곤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아이와 어른은 파트너로서 아이 자신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함께 생각하거나, 지원하는 단체로서 활동해 왔습니다. 제가 매일 종사하고 있는 ‘나고야시 아동·육아지원센터(758키즈 스테이션)’에는 주로 0살에서 2살 영유아와 그



육아 컨시어지가 상주하는
‘758키즈 스테이션’



보호자가 많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부터 강좌 등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기에게도 인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동권리조약’이나 ‘나고야 아동조례’에도 있듯이, 육아지원은 아이를 키우기 편한 환경을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아이 자신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영유아기의 아이는 권리의 주체이면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아기는 명확한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울고 웃음으로써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전달합니다. 이것이 의견 표명이며, 참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은 아이의 발달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이나 아이의 기분을 이해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함께 만들 권리

- 영유아기는 일생의 토대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아이와 가장 깊이 관여하는 보호자 등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그 이해가 깊어지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육아지원거점 등의 정비가 추진되어, 기존의 ‘모임장소’에 오는 사람이나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들어 분산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육아 가정끼리의 왕래가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아이가 남의 집안을 더럽히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나 불안감을 가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바로 검색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만, 자신만의 판단기준을 갖고, 정보에 휘둘리지 않는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떠안고, 계속 괴로운 생각을 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자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만들기가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시사각각 사회상황이 급변하는 시대, 안심하고 안전하게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정보에 휘둘리지 않는 판단력과 지혜를 제공할 수 있는 단체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어른도 미래를 함께 만들 권리가 있습니다. 모두가 주체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관계를 아이와 어른의 파트너십으로 구현해 가고 싶습니다.

칼럼

세계로 향한 문

글로벌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배운 것을 실제로 시험하는 체험 등의 기회를 창출하는 장으로서 레이와 원년(2019) 7월, 나고야 시 교육관내에 ‘글로벌 에듀케이션센터’가 개설되었습니다. 해외 대학강사를 초빙해 실시하는 강좌나, 원어민과의 교류활동을 포함한 영어캠프 등, 나고야의 아이들이 글로벌한 사회를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입니다.



해외 대학교수에 의한 강좌 모습

지향하는 도시상 실현을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

11.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12.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아이와 가정을 지원합니다
13. 학대와 따돌림, 등교거부로부터 아이를 지킵니다
14. 아이의 개성을 소중히 하고, 폭넓은 학력과 풍요로운 마음, 튼튼한 몸을 키웁니다
15. 젊은 세대가 배우고 성장하며 활약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듭니다



주요성과지표	최근의 현상치	목표치 2023년도	목표치 2030년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는 시민의 비율	79.8% (2018년도)	83%	86%
자신을 좋아한다고 대답하는 아이의 비율	81.0% (2018년도)	83%	86%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재해에 강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관계로 지키는 지역방재의 요점

- 소방단활동에 대해 알려주세요.

마에다씨: 코사카소방단(미도리구)은, 헤세이18(2006)년 4월, 20명의 단원으로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남성이 19명, 여성은 단장인 저 한 명입니다. 정기적인 활동으로는 월2회의 정례회와 훈련, 화재 예방을 위한 학군내 순찰 홍보가 있습니다.

와카조노씨: 나고야시 대학생소방단은 현재8분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난잔대학분단은 지역의 방재력향상과 홍보활동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군의 방재훈련이나 축제에 참가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면서 소화기 조작방법의 지도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방재퀴즈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에다씨: 저는 PTA임원의 인연으로 입단했습니다만, 지금도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단장이 되고 나서는 인근 소방단과의 관계도 소중히 하며, 합동훈련이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이 만일의 사태에 서로 도움이 됩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학군만으로는 다 대응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근 소방단의 지원이 매우 든든합니다. 넓은 범위에서 서로 관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와카조노씨: 저는 지역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들을 때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분발해야지’라고

매일매일의 관계를 소중히
방재를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소방단이고 싶다

(왼쪽)나고야시
코사카소방단 단장
마에다 미치코 씨

(오른쪽)나고야시 대학생소방단
난잔대학분단
와카조노 타쿠미 씨



미도리구소방단 연합사열식의 일제방수



입니다. 소방단에는 다양한 직종의 사람이 있으며, 각자 특기 분야가 다릅니다. 단원 개개인의 자신있는 분야를 활용하여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면,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와카조노씨: 저의 목표는 소방단에서 얻은 지식과 기능을 사회인이 돼서도 다양한 방면으로 살려 가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을 불문하고, 방재·방화상에서 위험한 부분은 없는지 판별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되고 싶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에게 방재의 중요성을 전하여, 방재의 고리를 넓혀 가고 싶습니다.

마에다씨: 지역 소방이나 방재 활동을 통해서 제가 나고야의 미래에 기대하는 것은, 화재나 사고가 없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더욱 지역에 친근한 소방단이 되어, 고향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와카조노씨: 제가 기대하는 나고야의 미래는, 지역이 하나가 되어, 정말로 'ONE TEAM'으로 방재에 대처하는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고야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스스로를 격려하게 되고, 지역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감도 생깁니다. 세대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도 소방단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친숙한 ONE TEAM

- 향후, 주력해 나가고 싶은 것이나 목표는?

마에다씨: 향후의 목표중 하나가 '지식이나 경험의 공유'

칼럼

주변에 있는 대비책

나고야 시내에는 지진 등의 재해로 인한 단수에 대비하여, 200곳 이상의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또 모든 시립초등학교 등에 '지하식 급수전'을 설치하여, 재해시에 지역 여러분 스스로가 조작하여 음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조작에 필요한 기구는 학교 방재 창고 등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위해 가까운 비상급수시설이나 지하식 급수전 장소를 확인해 둡시다.



지하식 급수전(맨홀 뚜껑을 열면 안에 수도꼭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난잔대학분단과 추코대학분단을 대상으로 한 교양훈련



지향하는 도시상 실현을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

16. 재해에 강한 도시기반정비를 추진합니다
17. 방재·재해감소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방재력의 향상을 지원합니다
18.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체제의 충실을 강화합니다
19. 범죄나 교통사고 없는, 안심·안전한 지역만들기를 추진합니다
20. 위생적인 환경을 확보합니다
21. 안심·안전하고 맛있는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22. 소비생활의 안정·향상과 식품의 안전·안심을 확보합니다



주요성과지표	최근의 현상치	목표치 2023년도	목표치 2030년도
재해에 강한 도시조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의 비율	51.8% (2018년도)	55%	65%
119번 신고 접수부터 병원수용까지의 평균시간	31.3분 (2018년)	30분 이하 (2023년)	30분 이하 (2030년)

전하고 싶은 소중한 생명

- 나고야 생물 다양성 보전활동협의회에 대해 알려주세요.

나고야 생물 다양성 보전활동협의회는 나고야시에 서식, 생육하는 생물과 그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생물 다양성의 현황 파악과 외래종의 방제 등을 통해서, 주변의 자연보전을 목적으로 헤세이23(2011)년 5월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텐파쿠구에 있는 나고야 생물 다양성센터를 거점으로, 시민, 전문가, 행정 등이

협동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고야시에서는 도시화의 진전에 수반해, 개발이나 외래 생물의 침입 등에 의해서 생물의 다양성이 손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동부구릉지의 넓은 녹지, 저수지, 하천 등을 중심으로 현재도 이 지역 고유의 희귀생물을 포함한 6000종에 가까운 생물이 생육,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을 ‘나고야 시민 생물조사원(시민조사원)’의 활동이나 ‘나고야 생물 일제 조사’, ‘나고야 생물 다양성 여름학교’ 등을 통해서, 널리 시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물과 만날 수 있는 여름학교는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서 생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희귀종의 서식이 확인되거나 새로운 발견이 있었을 때, 보전효과에 일정한 성과가 보였을 때는 기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물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와 동료가 될 수 있도록, 생물의 다양성을 매력적으로 알기 쉽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과 공생하는 미래로
우리 주변의 자연생태계를
시민의 보배로 지켜간다

나고야 생물 다양성
보전활동협의회
회장

하세가와 야스히로 씨



여름방학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협의회 회원이 강사로 실시하는 나고야 생물 다양성 여름학교

자연환경과 이어지는 기쁨을

- 향후, 주력해 나가고 싶은 것이나 목표는?

레이와2(2020)년은 COP10에서 채택된 생물 다양성의 세계 목표인 ‘아이치목표’의 목표의 해로, ‘미래로 잇는 “유엔 생물 다양성의 10년” 세이카릴레이’

칼럼

나고야에 후지산!?

공원에 있는 통칭 ‘후지산미끄럼틀’이라는 놀이기구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약 50년전에 나고야시 직원이 설계한 나고야발상의 놀이기구로, 시내를 비롯한 토카이 지역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색이나 모양, 크기 등, 각각 개성이 있습니다만, 부채꼴 형태나 공원의 상징이 되는 존재감은 일본의 명봉 ‘후지산’의 이미지가 겹쳐집니다. 이번 휴일에 가까운 공원에서 후지 등산을 즐겨 보는 것은 어떠십니까?



1966년도에 설치된 제1호 ‘후지산미끄럼틀’ (후키아게공원[나고야시 쇼와구])

라는 전국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큰 분기점으로 협의회에서는 지금까지의 10년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10년의 전망을 그리려 하고 있습니다. 나고야시가 생물 다양성 분야에서 앞으로도 세계를 선도하는 도시로 남길 바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민과 기업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재래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그 생물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감으로써 생물다양성에 대해 많은 시민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협의회가 노력해 가려고 합니다.

도시의 자연환경은 점점 인공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한편으로 시내에는 인근산 뿐만 아니라, 사찰의 산림 등에 지역 고유의 생태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고야가 자연과 공생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도, 시민 여러분이 이러한 생태계와 접하며, 생물이나 자연환경과의 교류를 기뻐할 수 있는 감성과 지식을 키울 수 있도록, 친근한 협의회를 목표로 하고자 합니다.



지향하는 도시상 실현을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

23. 대기와 수질 등이 잘 유지된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합니다
24. 친근한 자연과 농업을 접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25.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즐겁고 쾌적한 도시조성을 추진합니다
26. 좋은 도시기반을 갖춘 생활하기 편리한 시가지를 형성합니다
27. 보행자나 자전거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확보합니다
28. 배리어프리 도시조성을 추진합니다
29. 다양한 요구에 대응한 안심하고 여유있는 주거생활의 실현, 계승을 도모합니다
30. 시민사업자의 친환경활동을 촉진합니다
31. 저탄소도시조성을 추진합니다
32. 3R을 통한 순환형 도시조성을 추진합니다



주요성과지표	최근의 현상치	목표치 2023년도	목표치 2030년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이용하기 편하다고 생각하는 시민의 비율	81.6% (2018년도)	83%	85%
쓰레기·자원의 총배출량	88.8만톤 (2018년도)	88만톤	87만톤

매력과 활력이 넘치고 전세계에서 사람과 기업을 끌어들이는 열린 도시

부담없이 사람과 문화가 이어지는 장을

- 글로벌 나고야에 대해 알려주세요

다문화 상생의 사회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서 영어회화교실 ‘여행자의 영어회화’, 숙박시설 ‘글로벌 나고야 백패커스 호스텔’, 음식점 ‘글로벌 카페’, ‘카페 모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세계)과 로컬(현지)의 접점을 가짐으로써, 나고야라는 현지에서 이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사람과 문화가 이어지는 장만들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패커스 호스텔의 경우 단순히 외국인을 위한 숙박시설이 아닌 호스텔 겸 카페(1층이 글로벌카페, 2층이 호스텔) 스타일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호스텔뿐이라면

숙박할 필요가 없는 현지인은 이용하지 않지만, 카페라면 현지인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지요. 거기서, 영어 등을 할 수 있는 우리 직원이 사이에 들어가 소통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이런 곳에 갔다 왔다’는 여행자에게, ‘여기도 추천해요’라고 현지인이 숨은 명소를 알려 주며, 쉽고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의기투합하여 귀국 후에도 교류가 지속되거나, 일본으로 유학을 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나고야의 자원을 활용하여
글로벌(세계)과 로컬(지역)을 잇는다

글로벌나고야
대표

이치노 마사유키 씨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도시로

- 향후, 주력해 나가고 싶은 것이나 목표는?

최근 나고야에서도 해외 문화와의 접점을 가질 기회가 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곳으로는 편의점 점원이 그렇지요. 시내에서도 많은 외국인이 일하고 있지만, 아직 그들과의 교류나 관계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대처도 좀 더 거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문화교류면에서, 우리자신이 주도적으로 인재육성을

하거나 더 부담없이 교류할 수 있는 장소와 체계를 도시안으로 넓혀가고 싶습니다.

레이와원년(2019) 5월에 오픈한 ‘카페 모닝’은, 하나의 거점(글로벌카페 & 호스텔) 안에서만 다양성을 존중하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협동에 의해서 더욱 거리로 퍼져 나가, 침투해 가는 대처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점을 의식한 가게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페 모닝’은 상점가라는 로컬하고 일상적인 시간 속에서 다양한 가치관이 교류하는 공간입니다. 남녀노소, 일본인이나 외국인, 현지인이나 관광객, 그 어떤 사람이라도 목적에 따라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모든 사업을 통해서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은, 사람이 가지는 다양한 가치관이나 배경을 존중하는 것.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한사람 한사람과 마주하는 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고야 전체에서 다문화 상생의 대처가 더욱 추진되어, 다름을 존중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국제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저희와 관련된 사람뿐만 아니라, 나고야에 사는 사람과 이곳에 오는 사람 모두에게 있어 나고야가 더 즐겁고 애착이 가는 재미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호스텔 장기 체류자의 작별을 축하하는 파티 개최

칼럼

장인의 각명(사인)

나고야성의 천수대(천수각 토대의 돌담)에는 모퉁이부분을 중심으로 돌담을 쌓은 가토 기요마사(현재의 구마모토현에 해당하는 히고노쿠니의 무사)의 가신단이 각자의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대천수대의 돌담의 동북 모퉁이(혼마루를 후메이문으로 나가서 바로 왼편), 밑에서 5번째의 각석에 ‘가토히고노카미 우치소다이 시모우사’라는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토히고노카미 우치소다이 시모우사’라고 새겨진 각석

지향하는 도시상 실현을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

33.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도시로서 적합한 도심기능, 교류기능을 높입니다
34. 국제적으로 열린 도시조성을 추진합니다
35. 항구, 수변의 매력향상을 도모합니다
36. 매력적인 도시경관형성을 추진합니다
37. 역사, 문화예술에 기반한 매력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시민에 의한 매력발신을 촉진합니다
38. 관광진흥, MICE(마이스)의 추진과 정보발신에 의한 교류를 촉진합니다
39. 스포츠를 활용하여 도시의 매력과 활력을 높입니다
40. 지역의 산업을 육성, 지원합니다
41.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산업을 진흥하는 동시에 산업 교류를 촉진합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주요성과지표	최근의 현상치	목표치 2023년도	목표치 2030년도
관광객의 만족도	78.2% (2017년)	90% (2023년)	90%이상 (2030년)
주간취업자 1인당 시내 총생산	9,087천엔 (2016년도)	9,700천엔 (2021년도)	11,000천엔 (2028년도)

시민 서비스의 추진

전국에 자랑할 수 있는
‘모두의 항구도시’로



- 항구도시조성협의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항구도시조성협의회는 나고야항 지역을 무대로 주민과 행정의 협동에 의한 도시조성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고야의 미나토마치’를 컨셉으로, 나고야, 그리고 전국에 자랑할 수 있는 ‘모두의 항구도시’를 목표로, ‘생활하다, 모이다, 창조하다’를 테마로, 방재, 육아, 커뮤니티가든, 도시의 매력과 활성조성, 아트프로그램 등, 창의적인 시점을 도입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평소 거리를 걸으며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 것, 과제로 되어 있는 현장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헤세이 28(2016)년부터는 ‘항구도시를 만드는 아카이브 프로젝트’로서, 항구도시에 사는 주민들의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수집하고 전람회도 시작했습니다. 항구도시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도시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획입니다. 거리를 걷고 보고 듣고 했던 것들을 글로 기록해 가면 눈에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항구도시의 역사를 말해주는 생활도구를 만날 수 있고, 전쟁 중의 귀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세만태풍의 체험담으로부터 방재대책에 대해 배울 수도 있습니다. 기원과 옛 이야기가 도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단서가 됩니다. 사람들의 그리운 옛 기억은 도시의 미래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도시조성의 핵심은 사람과 사회와 그 관계성의 재구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의 연결을 되찾는 것. 사람을 대하고 사귀는 것은 귀찮은 일이기도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풍요로움은 바로 그 앞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의 첫발

- 향후, 주력해 나가고 싶은 것이나 목표는?

사람과 사회의 관계성이 회복되면 거기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하나하나 구현해 가고 싶은 바램이 제게는 있습니다. 도시조성과 진지하게 마주하고 있으면, 제자신 만들기로도 이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마주하는 사람이 사회를 바꾸어 가는 중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도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허브가 되길 바랍니다.



항구도시조성협의회의 중장기비전인
‘미나토마치VISION BOOK’ 개정 워크숍의 풍경

현대의 도시조성은 인간과 사회와 그 관계성을 재구축하는 것



항구도시조성협의회
사무국차장

후루하시 게이이치 씨

칼럼

역사를 아는 자

현재의 나고야시청(본청사)은 쇼와 8 (1933)년에 완성된 건물로, 헤세이 26 (2014)년에 국가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초록색의 은은한 빛이 드는 중앙계단의 조명기구와 차분한 색조로 꾸며진 중앙복도 벽면의 도기제 타일, 표면이 너울거리는 유리창 등, 완성 당시의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또 현관홀과 중앙계단에는 국회의사당과 같은 대리석을 사용하고 있어서 자세히 보면 화석이 파묻혀 있습니다.



나고야시청 본청사

제가 도시조성을 만난 것은 대학원생 때였습니다. 아이치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재생을 목표로 하는 지역을 대학에서 응원하는 프로젝트가 계기였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미숙한 청년들을 지역은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힘이 솟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역할이 있거든요. 젊은 시절의 강도 높은 도시조성체험이 제 인생을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이어진 도시를 찾지 않으면 안 될지도 모릅니다. 도시조성은 정말로 재밌었다라는 그 감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하고 싶다면, 그것을 지탱해 주는 사람이나 사회에 대해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도시조성에 힘쓰고 싶습니다.

시민 서비스의 추진을 위해서 대응하는 시책

- 42. 시민 서비스의 향상을 추진합니다
- 43. 시민으로의 정보발신,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를 추진합니다
- 44. 지역주체의 도시조성을 추진합니다
- 45. 공공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 보유자산의 유효활용을 추진합니다



주요성과지표	최근의 현상치	목표치 2023년도	목표치 2030년도
구청·지소창구의 대응에 만족하는 시민의 비율	97.1% (2018년도)	100%	100%
지역주민에 의한 도시조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의 비율	30.3% (2018년도)	40%	60%

나고야 도시가

향후 나고야의 도시조성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리니어 중앙신칸센 개통

오사카까지 연결되면
7,000만명
규모의
거대 경제권으로

슈퍼 메가리전

TOKYO

NAGOYA

OSAKA

나고야-도쿄
약 **40**분

레이와 9(2027)년 리니어 중앙신칸센(시나가와-나고야)의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독자기술인 초전도 리니어로 나고야와 도쿄가 약 40분으로 이어져, 수도권과의 교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선개통 후에는 도쿄·나고야·오사카가 약 1시간으로 연결되어 7,000만명 규모의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거대 경제권 '슈퍼 메가리전'이 탄생합니다. 나고야시는 그 중심도시로서 강한 경제력과 지리적 우위성 등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나고야역의 슈퍼터미널화를 비롯한 소프트·하드웨어 양방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매력적이며 세계로부터 사람을 끌어들이는 국제도시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비약할 기회!!

중요한 주축이 되는 2개의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제20회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2026년

9월19일(토)

10월4일(일)

관객
약 150 만명

선수, 대회 관계자
약 1.5 만명

레이와8(2026)년에 아이치현 및 나고야시에서 제20회 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시아판 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 아시아 최대의 스포츠축제로, 일본개최는 실로 32년 만입니다. 대회기간 중에는 선수와 감독, 코치 등 대회 관계자 약1.5만명, 관객 약 150만명이 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나고야의 매력을 세계에 발신하는 천재일우의 기회로 활용하여, 일회성의 스포츠 이벤트에 그치게 하지 않고 그 개최 효과를 스포츠의 진흥 및 교류 인구의 확대, 국제교류의 촉진, 상생사회실현, 국제경쟁력강화 등 여러 분야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미래와 세계의 문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 D G 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란, 헤세이27(2015)년 9월 유엔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어젠다’에 게재된 세계 공통의 목표로, 건강과 교육, 경제성장, 기후변화에 관한 것 등 폭넓은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대상이 설정되어 있으며, 레이와12(2030)년까지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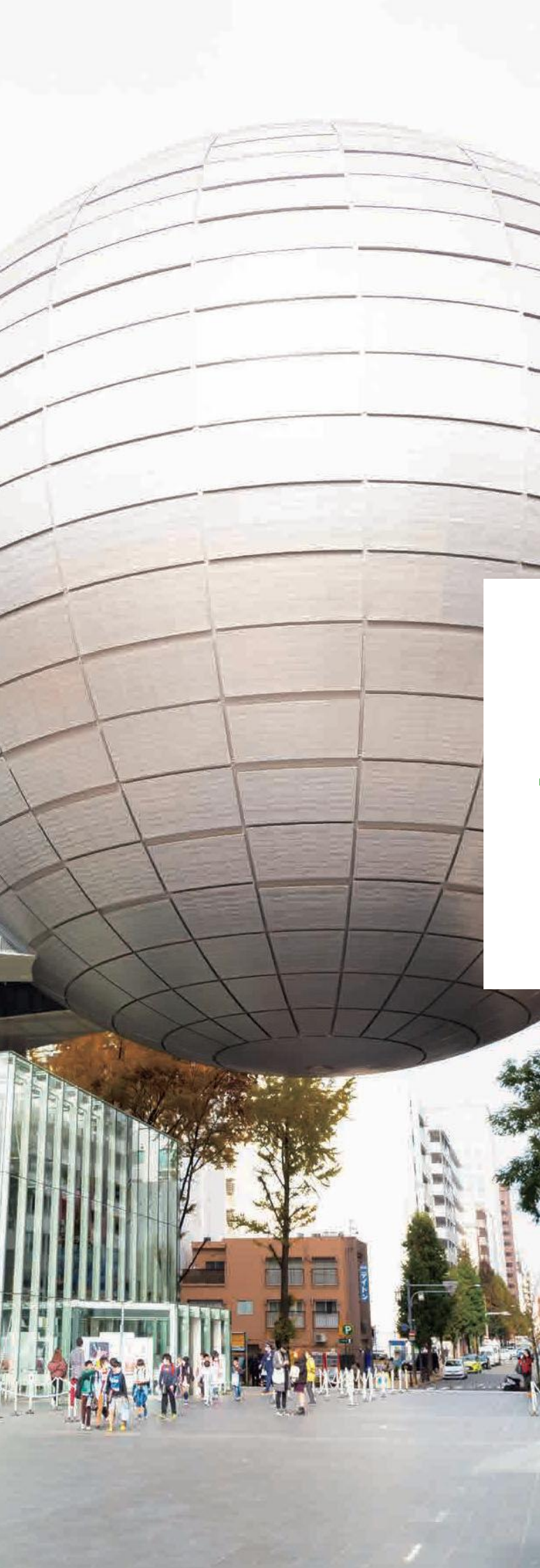
나고야시는 **SDGs 미래도시**로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갑니다!

나고야시는 레이와 원년(2019) 7월에 국가로부터 SDGs달성을 위한 뛰어난 접근법을 제안하는 도시인 ‘SDGs미래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종합계획추진을 통해 시민·기업·NPO 등 다양한 주체와 제휴하여 SDGs의 달성을 위해 솔선해 나아가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경제·사회·환경이 조화를 이룬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을 추진합니다.



SDGs 미래도시선정증 수여식
(중앙이 나고야시 호리바부시장, 아이치현, 토요하시시와 함께 촬영)



지향하는 도시상의 실현을 향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4개의 전략을
‘중점전략’으로 종합했습니다.

각 전략의 추진에 연일 분투하며,
활약하는 시 직원의 대응을 소개합니다.

중점 전략



※소속, 직책 등은 인터뷰 당시의 것입니다.

전략

1

아이와 부모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키웁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팀으로 대응하는 세심한 지원

- 나고야 아동응원위원회에 대해 알려주세요.

가와기시씨:헤세이26(2014)년에 시작한 ‘나고야 아동 응원위원회’는 학교 상담사, 학교 사회복지사, 학교 자문위원, 학교 보안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직종을 배치하여 활동의 거점이 되는 중학교 11곳 외에, 모든 중학교에 상근직 학교 상담사를 배치하고,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스태프가 제휴·협력하면서 다양한 고민과 걱정을 겪는 아이와 보호자에 대한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카구치씨:상근 전문직을 학교에 배치함으로써, 아이들과



평소 교류하면서, 문제의 미연방지와 조기 발견, 개별지원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사이씨:복수의 직종이 지닌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팀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동응원위원회의 큰 특징이자 장점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나 보호자에게 있어

최선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와기시씨:아침 등교길, 교문에서 아이들의 표정을 관찰하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평범한 아침 인사입니다만,

아이들의 표정이나 모습에서 고민이나 걱정이 있는 아이를 재빨리 찾아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아사이씨:발견된 과제나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팀 회의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카구치씨:상담실 등에서 아이나 보호자와의 개별면담을 행할 뿐만 아니라, 가정방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상담사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일도 있고, 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팀으로 활동함으로써 대응의 조직망이 촘촘해져, 세심한 지원으로 이어집니다.



1 미래를 책임질 인재가 자라난다! ‘아동·청년응원전략’

- ① 아이·부모 종합지원추진
- ② 아이의 건강한 성장지원
- ③ 폭넓은 학력육성, 체력향상 추진
- ④ 글로벌인재·물건을 만드는 인재·ICT 인재의 육성을 위한 교육의 충실화
- ⑤ 배움을 지탱하는 교육환경의 내실화
- ⑥ 청년들이 배우고 활약할 수 있는 환경조성

2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다! ‘육아응원전략’

- ① 임신 전부터 육아에 이르는 중단없는 지원
- ② 일하면서 육아하기 편한 환경조성
- ③ 사회 전체에서 육아를 지원하는 환경조성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인생의 향로를 찾을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나고야
아동응원위원회

(왼쪽) 학교 상담사
사카구치 히로키 씨

(중앙) 학교 상담사
가와기시 아키코 씨

(오른쪽) 학교 사회복지사
아사이 사토시 씨

꿈과 희망으로 넘치는 미래를 향해 ‘아동·청년응원전략’

아동·청년
응원 전략

- 향후, 주력해 추진해 가고 싶은 것이나 목표는?

가와기시씨: 보호자분으로부터 아이들이 졸업 후에도 잘 지낸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선생님들께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통해, 서로 연계한 충실한 지원이 가능했을 때는 기쁘고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아동응원위원회라는 일본내에서도 유례없는 제도 속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있는 나 자신으로 있고 싶고, 나고야의 아이들이 매일매일 행복감을 느끼며, ‘내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합니다.

사카구치씨: 매일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된다’는 인식이 침투되고 있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며, 동시에 상담하기

편한 환경조성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긴급한 사안도 상근직이기에 즉각 대응할 수 있고, 초동부터 학교와 함께 지원에 임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환경이 바뀔 때마다 지원이 끊기는 일 없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지원이 릴레이처럼 연결되는 나고야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사이씨: 저희들의 일은 비포장된 곳에 아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것을 돕는 것과 같습니다. 얼굴이 가려진 키다리 아저씨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거리에서 졸업생이 말을 걸어오거나 그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게 되면 저희도 용기를 얻습니다. 아이들의 장래희망이 ‘학교 선생님’만이 아니라, ‘아동응원위원회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모두에게 친절한 복지를 실현하고 건강하게 활약할 수 있는 도시조성을 추진합니다



지역복지의 가까운 창구

- 보건복지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모리씨: 아쓰타구 보건복지센터에서 아이나 고령자,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과 건강만들기 추진 등에 임하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까운 창구로서 부담없이 이용, 상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하시씨: 저는 남구보건복지센터에서 주로 지역포괄

케어 시스템 추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행정, 관계기관이 모여 지역과제의 해결을 위한 지원이나 대책에 힘쓰고 있습니다.

모리씨: 아쓰타구에서는 로코모티브 신드롬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쓰타 로코모 예방대사(양성강좌를 수강한 구민)’의 여러분과 구의 보건사가 협력해 ‘나고야 건강체조 아쓰타구 오리지널 버전’의 보급·계발활동을 추진하는 등,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건강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하시씨: 미나미구는 고령화율이 시내에서 가장 높아, 요양예방의 대처로서 ‘렛츠☆스마일부대’라는 구민그룹과의 협동, ‘이키이키 백세체조’의 거점만들기 등, 지역 주민들과 함께 운동습관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고령자분 등의 어려움에 대한 상담이 있을 경우에 필요한 기관으로 연결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리씨: 고민이나 곤란한 일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복잡한 문제를 떠안고 지역에서 어려운 분을, 의료기관이나 민생·아동위원 등의 지역의 임원, 타직종과 제휴하여 적절한 지원으로 연계해 가는 과정에는 고생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웃음 띤 얼굴이나 감사의 말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오하시씨: 자신들의 지역을 이렇게 하고 싶다, 바꾸어가고 싶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을 만나면, 매우 기쁘고 보람으로 이어집니다. 지역의 과제를



1

장수사회를 걱정없이!
‘건강·안심전략’

- ① 건강만들기·예방의료추진, 선진적인 연구추진
- ② 구급의료체제의 충실화
- ③ 치매시책의 내실화 등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심화·추진

2

누구나가 활약!
‘다이버시티(diversity)
추진전략’

- ① 인권이 존중되고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는 사회 실현
- ② 다양한 인재의 활약 추진
- ③ 장애인 지역생활지원
- ④ 배리어프리 도시조성

3

다 함께 만들자!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전략’

- ① 활약할 수 있는 장의 형성과 참여를 위한 지역활동의 촉진
- ② 지역의 다양한 역군 육성·지원





나고야가쿠인대학 나고야캠퍼스
타이호를 회장으로 활동하는
‘아스타 로코모 예방대사’ 여러분

자신의 일로 여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지역을 위해서 공헌하려고 하는 모습에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건강하게 활약할 수 있는 도시로

- 향후, 주력해 나가고 싶은 것이나 목표는?

모리씨:나고야시에서는, ‘원코인 암검진’이나 예방접종
비용조성 등, 선진적인 대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누구나가 더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면서 활약할 수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역이나 대학, 기업 등과 제휴해,

평소에도 시민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있고,
여기서 사람과의 연결이 생기고, 힘들 때는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오하시씨:어려운 사람을 그냥 방치하지 않는 지역만들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SOS를 발신할 수 있고,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지역포괄케어 현장에서는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도 상담에
이르지 못해 제도의 틈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나고야시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상담하기
쉬운 체제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직적 분할이
아닌, 횡적인 확대로 과제 해결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되었으면 합니다.

평소의 연결로부터 누구라도 상담할 수 있는 지역조성을



(오른쪽)아스타구
보건복지센터 소장
[보건사]
모리 토시에 씨

(왼쪽)남구보건복지센터
복지부 복지과 주임
[보건사]
오하시 카나 씨



생명을 지키는 사명감

- 구급구명사의 업무를 알려주세요.

저는 구급구명사로서 매일 인명구조의 최일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19번 신고를 접수한 나고야시 방재지령센터로부터 출동명령을 받고, 구급차로 현장으로 향해, 부상자나 환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현장에서는 증상이나 경과를 파악해 병원에 전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태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링거 등의 처치를 실시합니다.

시내의 연간 구급 출동 건수는 약13만4천건(2018년 간)으로, 9년 연속 역대 최다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4분당 1회꼴의 출동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직접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근무시간 중에 방심은 금물이며, 그만큼 한 건 한 건의 출동에 대해서 큰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급대의 도착을 기다리는 시간이 매우 길게 느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불안감에 떨고 있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속한 출동과 발빠른 현장 도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주민에 의한 흉골압박(심장마사지)으로 생명을 구한 예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현장에서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구명의 연쇄’를 통해 생명이 지켜진 사안이어서 매우 인상에 남았습니다.

안심·안전을 실감할 수 있는 도시로

- 향후, 주력해 나가고 싶은 것이나 목표는?

나고야시의 119번 신고접수부터 병원수용까지의 평균 소요시간은 31.3분(2018년간)으로, 동일 규모이상의 도시중에서는 매우 짧습니다. 이는 각 의료기관의 구급 업무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1 대비에 만전을! ‘지역방재전략’

- ① 방재계발활동의 추진
- ② 지역특성에 따른 방재대책의 추진

2 재해에 강하게! ‘재해 대응력 향상전략’

- ① 소방·구조체제의 내실화, 방재거점 등의 기능강화
- ② 정보수집 전달수단의 다양화·내실화
- ③ 지정대피소의 기능강화
- ④ 내진대책·침수대책 등 도시방재기능강화
- ⑤ 귀가곤란자의 대책추진

3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생활의 안심·안전전략’

- ① 구급구명체제의 충실화
- ② 안심·안전한 지역만들기





시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안심·안전을 실감할 수 있는
도시조성을 지탱해 가고 싶다

소방국 구급부
구급과 지도담당
사카베 순 씨

중점전랑
논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하루하루의 훈련과 연구를 통해 끊임없이 시간단축을 목표로 함은 물론이고, 구급 출동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방국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6년간 구급구명사로서 기관내 삽관이나 링거, 약제투여 등 전문적인 처치를 배우면서 구급구명을 전담해 왔습니다. 향후에는, 지금까지 얻은 지식·기술을 넓혀 다른 소방관과 공유하거나 후진양성에도 힘을 쏟는 등, 실무면의 인재육성에 임하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전원이 임해야 할 과제로서 지역방재활동의 지원을 들 수 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거대지진 발생시의 나고야시의 피해상정에서는 가구 전도방지대책 등을 실시함으로써 부상자수가 절반정도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한 대비와 재해감소로 이어지도록, 각 가정이나 자주방재조직의 적극적인 장려를 비롯해, 시민 여러분이 장래적으로도 안심·안전을 실감할 수 있는 도시조성을 지탱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와 구조대가 제휴한 구출훈련

강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번영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환경과 조화된 도시기능을 강화합니다



이노베이션을 나고야에 넣어넣는다

- 업무내용을 알려주세요.

예전에는 일본의 기업이 세계의 시가총액 랭킹의 상위를 독점하고 있었지만, 근래에는 Google이나 Amazon, Facebook, Apple을 비롯한 해외기업이 상위를 독점하고 있어, 일본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고야시에서는 이노베이션의 기폭제가 되는 스타트업기업의 창출과 환경정비에 힘쓰고 있으며, 저는 그러한 시책의 입안이나 시설의 운영, 프로그램기획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헤세이29(2017)년에는, 정보기술을 이용한 아이디어를 젊은 엔지니어들이 겨루는 'NAGOYAHACKATHON (나고야해커톤)'을 개최했고, 헤세이30(2018)년부터는 이노베이터육성·비즈니스창출프로그램 'NAGOYA BOOST 10000(나고야 부스트 텐사우전드)'를, 그리고 레이와원년(2019)에는 기존기업과 스타트업기업의 교류·대류의 거점이 되는 'NAGOYA INOVATOR'S GARAGE(나고야 이노베이터스 개레지)'의 오픈을 담당해 왔습니다. 해커톤 등의 사업은 기업을 단지 모으는

것만이 아닌, 신규사업개발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서포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기업을 연결하여, 거기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기획이 생기면 기쁘며, 기업의 요구를 수렴하여 시책을 입안하고 실시하기까지 관계되는 모든 일에 보람을 느낍니다.

강점을 살려 도전하는 도시

- 나고야의 강점은?

시내 대학이나 제조를 중심으로 한 기업에 우수한 인재가 많은 것이 나고야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중에는 사업프로그램에서



1

다가오는 아시아! 리니어! '도시기능강화전략'

- ① 리니어 신칸센 개통을 위한 도심의 매력만들기
- ② 제20회 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한 기반정비
- ③ 최첨단 모빌리티도시의 실현을 위한 대응 추진
- ④ 대중교통의 쾌적성·편리성 향상
- ⑤ 광역교통망 강화

2

지속가능한 미래로! '환경도시추진전략'

- ① 저탄소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 스타일로 전환
- ② 친환경조성, 물순환기능회복, 생물다양성의 보전
- ③ 사회경제체제의 변화에 대응한 3R 추진
- ④ 환경과 경제·사회를 연결하는 통합적 대응 추진



세계를 내다보고 글로벌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기업간의 시너지효과를 높여간다



시민경제국 산업부
산업노동과 주임

이나가키 나오키 씨

배운 것을 살려 취직할 곳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스타트업기업 중에는 AI, 로봇, 우주, 헬스케어 등의 폭넓은 분야에서 유망한 기업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 향후, 주력해 나가고 싶은 것이나 목표는?

이노베이션의 창출에는 역군이 되는 도전자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업자나 기업 내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안트러프러너교육(창업자인재육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동시에 '실패를 장려하고, 도전하는 문화'의 양성이 필요 불가결합니다.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등용하거나, 설령 실패하더라도 거기에서 교훈을 얻은 사람을 평가하는 토양 문화가 필요합니다. 이노베이션(innovation)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선진적인 테크놀로지의 활용으로 시민이 보다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행정으로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3 교류를 촉진하고 새로운 가치창출! '이노베이션전략'

- ① 이노베이션 창출·창업 등 지원
- ② 가치조성산업·성장산업진흥, 전략적 기업유치
- ③ 산업교류촉진, MICE(마이스)추진
- ④ 지역상업의 활성화
- ⑤ 산업인력의 육성·확보

4 매력자원의 연마! '매력향상·발신전략'

- ① 나고야성을 중심으로 한 매력중축의 창출, 발신
- ② 문화·역사자원, 관광자원 등 나고야가 가진 매력향상·발신
- ③ 국제교류추진, 수용환경정비, 해외로부터의 유객촉진
- ④ 스포츠, 팝문화를 활용한 매력창출·발신
- ⑤ 시민의 프라이드 양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창출을 위한
피치 이벤트 'NAGOYA BOOST DAY
(나고야 부스트데이)'

내가 ♥**좋아**하는 나고야

차분히 잘 찾아보면
여느 때와 다른 매력을
발견할 지도 모릅니다.

나고야역의
고층빌딩군은
압권입니다!
마천루를 올려다보면
나고야의 힘찬
기운이 느껴집니다.

나고야말
(나고야사투리)
억양이 너무 좋아요.
어딜 가더라도
물들지 않고
간직하고 싶습니다.

너무 시골도,
그렇다고 너무
도시적이지도 않은
곳.
나고야성
주변풍경을 매우
사랑합니다!



세계를 향한 최고의
도시 스펙이
갖춰진 곳!

편리함과 살기 편함
균형감이 좋네요!
히가시야마동물원·
과학관·메이필은
어릴 때부터 즐겨
찾았습니다!

도시이면서도
공원, 녹음이 많아,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점이 매우
좋습니다!

나고야먹거리 등
독자적인 문화가
있는 곳.
이것이 나고야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용어해설

▼IoT

Internet of Things의 약자.

사물 인터넷컴퓨터 등의 정보통신기기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체(물건)에 통신기능을 갖게 하여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서로 통신함으로써 자동인식이나 자동제어, 원격계측 등을 하는 것.

▼이노베이션

종래의 사고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발상으로, 새로운 가치를 낳아, 사람들의 생활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

▼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어. 인공지능. 언어의 이해나 추론, 문제해결 등의 지적 행동을 인간을 대신해 컴퓨터에게 행하게 하는 기술.

▼구급의료체제

(제1차 체제) 감기나 갑작스러운 발열과 같은 경증환자에 대응, (제2차 체제) 입원이나 긴급 수술이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응, (제3차 체제) 고도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응.

▼3R

‘Reduce=리듀스(발생억제)’, ‘Reuse=리유스(재사용)’, ‘Recycle=리사이클(재활용)’ 등 세 개의 머리글자를 딴 말로 쓰레기감량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나타낸다.

알면 알수록 심오한
차문화입니다.
찾집에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나고야에서
손꼽히는 전망을
사랑하는
타카노미즈공원에
서 보는 풍경.
나고야의
거리풍경이나
자연을 보면
재충전이 됩니다.

나고야 사람들은
마음속에 **도시**에
대한 깊은 애정을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랑스럽게
여겨집니다.

화과자는 단연 일본
최고!
맛도 모양도 품질도
훌륭합니다.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매력적이고 멋진
사람**이 많은 곳.
그리고 맛있는
식사와 술도.
이것저것고
민되네요.

**신사와 신사주변의
숲**에는 개성
넘치는 생물들이
살고 있어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
함께 지켜
나갑시다!

지역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많은 곳.
지역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 여러분**이
너무 좋습니다!

**병원 등의
의료기관**이 많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권은 고마울
뿐입니다.

▼슈퍼 메가리전

도쿄, 나고야, 오사카는 메가리전이라 불리는 대도시권역을 형성하고 있는데, 슈퍼 메가리전은 그 3대 도시권이 각각의 특색을 발휘하면서, 리니어 중앙신칸센 전선개통에 의해 일체화되어 형성되는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거대 경제권을 말함.

▼나고야 대도시권

나고야시를 중심으로 대략30~50km의 범위에서 산업, 관광, 방재 등 분야별로

유연하게 포괄한 지역.

▼MICE(마이스)

기업 등의 회의(Meeting), 기업 등이 실시하는 보상·연수 여행(인센티브여행)(Incentive Travel), 국제기관·단체, 학회 등이 실시하는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견본시, 이벤트(Exhibition/Event)의 머리글자. 많은 손님과 교류가 전망되는 비즈니스 이벤트 등의 총칭.

▼로코모티브 신드롬

뼈, 관절, 근육 등의 운동기관의 쇠약으로 인해 '일어서기', '걷기'와 같은 이동기능이 저하된 상태.



나고야시종합계획2023 가이드북

레이와2(2020)년 4월

편집·발행:나고야시 총무국 기획부 기획과
(우)460-8508

나고야시 나카구 산노마루 3초메 1번1호

전화: 052-972-2203 Fax: 052-972-4418

